나주에 '다문화 국제 공방촌' 만든다

〈工房村〉

市, 천연염색문화관 주변에 2010년까지 조성

이주 여성들 자국 염색 공예품 만들어 판매

나주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공방촌(工房村)이 조성된다.

나주시와 천연염색문화관은 오는 2010년까지 다시면 천연염색문화관 주변에 이주여성이 자국의 천연염색 공예품을 만들어 전시, 판매하는 '국경없는 공방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6년 개관한 천연염색문화관은 관람객이 연간 7만여명에 달하고 3만여명이 염색체험을 하는 등 '천연염색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전통공방 6곳이 성업 중이다.

시는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문화 이주여성이 직접 해당 국가의 다양한 천연염색 작품을 제작, 판매하는 공방촌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취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에게 취업기회 제공, 창업에 따른 소득향상,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 새로운 관광명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나주는 중국을 비롯한 필리핀, 베트남, 몽골, 라오스 등 다문화 이주여성 수가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곳이어서 공방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

문화관은 우선 올해 부지 매입과 함께 창업을 희망하는 10여개국 20여명의 이주여성을 상대로 천연염색 교육과 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서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 국가의 천연염색 섬유와 공예품 전시회도 상시 여는 등 국제 공방촌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경없는 마을의 날' 지정과 문화공연, 음식체험, 다문화 센터 건립 등 관광객들에게 다문화 체험을 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문화공간도 만들 계획이다.

천연염색문화관은 다시면 회진리 옛 폐교 부지 9천여㎡에 65억원을 들여 조성됐으며 상설전시장과 자료관을 비롯해 판매장과 체험장, 교육 세미나실, 연구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염색 시설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보성 녹차밭 '눈꽃 나라' 19일 첫 눈이 내린 보성 녹차밭. 겨울 동화속에 나오는 '눈꽃 나라'를 연상케 하면서 녹차밭이 겨울철 볼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대형차량 전용 주차장 건립

해남군 내년 하반기 완공

해남지역에 대형 차량 전용 주차장이 설치된다.

해남군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아파트 밀집지역인 해남읍 구교리 주변 빈터에 야간 주차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전용 주차장 건립에 나섰다.

군은 마산면 상등리 일대(해남운전학원 입구)에 1만5천㎡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 3억원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전용 주차장이 완공되면 100대의 대형 차량이 읍 외곽으로 빠져나가 시가지의 차량 정체 해소는 물론 소음과 매연공해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원예農에 재생에너지 보급

장성군-에너지기술연 협약

장성군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농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지열난방시스템의 기술개발에 관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에 나섰다.

지열난방시스템은 100~200m 깊이의 땅속 지열을 흡수, 히트펌프를 이용해 온실 등 시설하우스에 난방을 하는 것으로 경유 난방보다 80%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전남도 유명무실 위원회 퇴출

107개 중 39개 1년 동안 회의 한차례도 개최 안해

전남도가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위원회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33개 실·과·소에서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107개이며, 이중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전체의 36.5%인 39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위원회 설치 근거와 적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키로 했다.

특히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 별 실태분석을 통한 존치 및 통·폐합 여부를 결정해 상시 정비태세를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 위촉시 전문성과 윤리성 검증 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시적 위원회는 존속기한 명시 및 목적 달성시 자동폐지(일몰제) 등을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양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75개)에 대해서는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점을 감안, 법령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우사료 자급 자족으로 축산농 부담 줄였다

영암 김재성 축산과장 국무총리상 수상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내·외적 악 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축산 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축산발전시책유공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재성 영암군 산림축산과장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소 값 하락에 이어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 과장은 한우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우 사료 자급자족 등에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7년부터 2년째 산림축산과를 맡고 있는 김 과장은 부임 직후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사료값 인상을 예측하고, 우선적으로 한우 사료 자급 자족 4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따라 고품질 유기농사료로 인정받고 있는 청보리 재배 면적을 2006년 135ha에서 2008년 740ha로 3년 만에 5.5배 늘려내 연간 사료비 396억원 중 50여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 과장은 "관내 모든 축산 농가들이 부농이 되는 날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명품청자 토요경매 '인기 짱'

강진청자박물관, 21차례 걸쳐 144점 판매

국내 유일의 관요(官窯)인 강진청자박물관이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명품청자 토요경매행사'가 인기 행사로 자리잡았다.

강진청자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작된 토요경매가 21차례에 걸쳐 출품된 270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4점이 낙찰, 4천2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토요일의 추억'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토요경매는 강진은 물론 전남지역 도예가들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경매 응찰자도 2천명에 이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청자박물관에서 열리는 이 경매는 정상 판매가의 절반에서 시작, 호가 경매(呼價競賣)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쟁자 없이 1명이 응찰한 경우도 소수 구매자를 위해 판매된다. 박물관측은 일주일 전부터 경매에 출품될 작품을 군과 청자박물관, 전남 시군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응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 중간에는 대금과 기타, 바이올린 연주, 청자관련 퀴즈 등으로 경매분위기를 띄우는 등 토요경매가 하나의 잔치판이 되고 있다.

강진청자박물관 윤순학 관장은 "여태껏 보지 못한 도예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점도 인기를 끄는 비결이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장성 쌀 '365생 프리미엄'

100대 고품질 브랜드 포함

장성군의 대표 브랜드 쌀인 '365생 프리미엄'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중인 전국 100대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쌀 브랜드 활성화 사업비 1억5천만원 등 11억5천만원의 국·도비와 벼 매입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까지 전국에서 100개의 대표 브랜드 쌀을 골라 육성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365생 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역의 쌀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곡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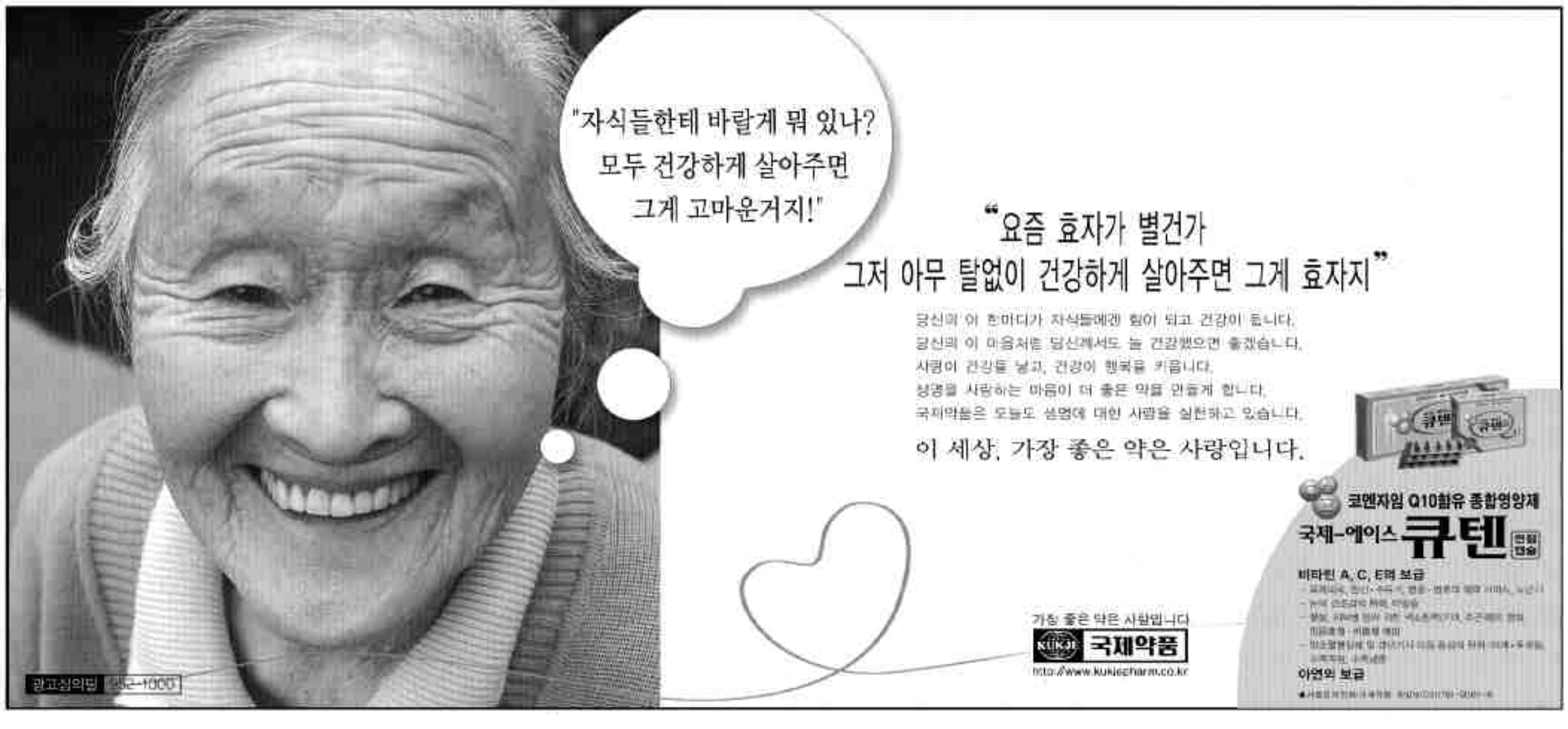
119 안전센터 불조심 가두 캠페인

곡성 119 안전센터(센터장 한상수)가 불조심 홍보와 화재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곡성 119 안전센터는 지난 17일 소방 관계자와 의용 소방대원, 경찰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방차 4대, 경찰차 1대를 동원, 군청 앞을 출발해 경찰서~ 5일시장~119 안전센터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백종욱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전 대원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겸면사무소 직원들 이웃사랑

곡성군 겸면사무소 직원들이 2년째 목화공원 유휴지에 직접 가꾼 농작물을 수확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겸면 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17일 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의 요양시설인 흥산보금자리에 고구마, 토란 등 사랑이 담긴 신토불이 농산물 100kg을 전달했다.

이 농산물은 겸면사무소 직원들이 매년 9월에 개최하는 목화축제 현장 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500여평의 밭에 틈틈이 가꾼 것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